

로버트 야브러 박사, 요한 서신,

1차 회의 - 요한 서신의 저자, 날짜 및 배경

로버트 야브러 박사님의 요한 서신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균형" 1부, 요한 서신의 저자, 기록 연대, 그리고 배경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요한 서신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한일서에 대한 해설을 찾고 계신다면 이 시리즈의 5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서를 원하시면 4부, 요한삼서를 원하시면 3부입니다. 하지만 이번 1부에서는 요한 서신의 저자, 기록 연대, 그리고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강의에서는 요한 서신의 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이죠. 자, 잠시 멈춰 이 강의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에 대한 사도 요한의 간증에 감사드립니다. 사랑받는 제자로 알려지게 된 그의 교회를 향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이 서신들 속의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 담긴 계명들을 이해하고, 이 서신들을 연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강의에 붙인 제목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균형 잡힌 삶"입니다.

살펴 보기 전에,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그리고 요한 서신의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자에 관해서는, 교회사를 통틀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저자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으로 불립니다.

그의 형은 야고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세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는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베드로는 보통 변덕스럽다는 평판을 받지만, 요한과 야고보 역시 자신이 옹호하는 것에 대해 깊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 한때 그들은 하늘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정적인 형제였습니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야고보는 결국 순교했지만 요한은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1800년경까지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랑받는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세 개의 서신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1800년대 이후로 이 책들의 요한 저자가 의심받고 있지만, 도널드 거스리의 신약 서론이나 카슨과 뮤, 돈 카슨과 더글러스 뮤의 신약 서론, 그리고 안드레아스 코스텐버거 , L. 스콧 켈럼, 찰스 L. 와를스가 편집한 더 최근의 책인 요람, 십자가, 왕관과 같은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 복음서와 묵시록의 저자에 대한 매우 훌륭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저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이 서신들을 썼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강력한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건 서론적인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강의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교회사의 합의된 견해와,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해 보고, 1세기와 2세기 교회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살펴볼 때, 서신 자체의 증거를 통해 확신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요한이 이 서신들을 썼다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언제 이 서신들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후기에 이 서신들을 썼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으며, 고대 기록에 따르면 요한은 예루살렘 함락 후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80년대 후반과 60년대에 함락되었습니다. 로마군이 북쪽에서 예루살렘 으로 진격했을 때 갈릴리를 정복하고, 80년대와 60년대 초에

시작된 예루살렘 내전을 진압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로마군이 비웃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군대가 도성으로 오는 것을 보면 산으로 도망치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쳤고,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으며, 80년대와 90년대에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볼 수 있는 상황과 일치합니다. 요한은 에베소 해안에 있는 섬인 밧모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섬에서 에베소가 수도였던 로마 속주인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목회자로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을 썼고, 바로 그 맥락에서 서신들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의 서신들은 요한이 밧모 섬으로 유배되기 직전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에베소로 가는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그 주변의 주요 중심지, 즉 로마 속주 아시아에 속한 일곱 교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반적인 시간대에 서신을 쓰고 그 신앙 공동체들 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 입니다.

저는 종종 상상해 왔지만,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가 유배 생활을 하면서 석방을 바라는 동안 이 편지들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가 말하는 석방은, 편지를 쓰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2서 1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요한3서 14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서신 모두 그의 유배 기간 중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서신을 살펴보면서 그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의 내용을 통해 요한1서의 배경에 대해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 분열, 혹은 때로는 분파(schism)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은 "그들이 우리 에게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

그러니까, 누군가 회중이나 회중들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가정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가 어떤 지역의 교회에 설교할 때, 그것은 단지 하나의 회중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작은 모임들이 가정에 모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에게서 나갔지 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초기 교회의 삶을 비추는 빛 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며, 우리가 회중이라고 부르는 것이 형성될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해 우리는 진리가 있는 곳마다, 곧 진리에서 벗어나는 무언가가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때로는 지역의 종교적 또는 사회적 신념이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교회가 지역 세력에 의해 장악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교회는 자체적인 관점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통해 외부에서 유입된 것을 극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개인적인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요한처럼 사도적 지도자가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누군가 질투하거나, 누군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요한이나 교회를 세운 사람보다 자신이 더 잘 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요한이 요한일서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지 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우리와 같았다면, 우리와 함께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우리 모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ESV, 즉 영어 표준역을 인용합니다.

따라서 세 서신 중 요한일서가 분명히 지배적인 서신이지만, 저는 요한2서와 요한3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1서는 이러한 분열을 알고 요한의 교회에서 이탈하려는 유혹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회중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서신이거나, 아니면 떠나간 사람들을 위해 교리나 관습을 조정하기 위한 서신일 수 있습니다. 요한3서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겔봉투라는 설이 있습니다.

분명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측근이었던 가이오에게 보낸 서신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한삼서를 읽어보면 그 점이 분명해집니다.

요한과 가이오는 사이가 좋습니다. 밧모섬에 대한 제 생각으로 돌아가서, 요한은 밧모섬에 유배되었을 수도 있고, 반대 때문에 본토에 숨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 아니면 더 이상 여행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직접 교회에 요한일서를 전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삼서에 이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12절에 호의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데메드리오가 요한의 세 서신을 가이오에게 전달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한삼서 9장, 가이오에게 보낸 이 서신에서 우리는 요한을 반대했던 디오드레베와 요한이 지지했던 복음 메시지에 대해 읽습니다.

요한삼서 9절에서 요한은 "내가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라고 쓰고, 가이오에게 썼습니다. 가이오, 내가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요한이서나 요한일서, 혹은 둘 다를 의미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 2서는 가이오의 교회에 보낸 편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이오가 속한 교회가 요한1서를 받아 힘을 얻고, 가이오가 다른 교회에 배포하도록 돕도록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세 서신은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요한3서는 개별 교회에게, 즉 택함받은 여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요한2서 1절에 따르면 회중과 그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요한1서를 받는 모든 교회에 보내는 하나의 통합된 사도적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들은 에베소 교회와 주변 아시아 교회들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다루어질 예정이며, 잠시 후에 살펴볼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상상의 설정일 뿐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2세기, 3세기의 증언을 살펴보고, 편지 자체를 읽어보고, 그것들이 단편적이고 서로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요한 삼서와 요한 이서 자체는 너무나 하찮아서, 만약 다른 편지들과의 접촉을 차단했을 때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았다면, 왜 보존되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Luke Timothy Johnson이 쓴 서문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는 처음은 아니지만 최근 세대에 이 서신을 일종의 묶음으로 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서신들을 서로 연관시켜 읽어야 하며, 그렇게 한다면 제가 방금 간략하게 설명한 시나리오가 말이 됩니다. 즉, 요한 3서는 서신의 표지이고, 가이오는 요한 1서, 2서, 3서를 요한이 있는 곳에서 받아 자신에게 보낸 서신을 읽고, 그런 다음 요한 2서를 읽거나 요한 2서가 그의 교회에서 읽히게 한 다음, 그것을 읽는 교회에 요한 1서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말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메시지가 아시아의 다른 교회들, 다른 일곱 교회들, 또는 다른 여섯 교회들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이 분열주의 집단의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디오드레베스.

저자와 배경에 대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쓴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싶습니다. 일곱 개의 편지를 모두 살펴볼 수도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고, 그건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에서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다른 곳에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고,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보고 있는 것에 대해 몇 가지 관찰을 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직접 읽어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의 말씀을 천사에게 써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곧 교회의 천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교회에 파견된 천사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성령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며, 어떤 이들은 사자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사가 사자일 수도 있고, 교회의 영적 지도력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메시지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노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자들을 발견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들을 말합니다. 저는 교회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들은 헌신과 분별력을 가진 교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일이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은 분별력이고, 여러분은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는 자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우리가 얻는 그림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그들은 요한이 사용한 ‘우리’와 결별 하고 있는데, 이는 제 생각에 자신과 사도적 메시지를 충만하고 진실되게 대표하는 다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에베소 교회는 복음적 삶, 복음적 추론, 복음 교리 공식화에 있어서 과거의 성실성에 대한 실적 때문에 여기에서 강력하게 칭찬받습니다. 그는 3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며 지치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제 말은, 그들은 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낸 일곱 편지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교회이고, 아마도 가장 강력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대도시 중 하나였고, 라오디게아나 서머나 같은 작은 도시들은 그에 비하면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 그래서 바울은 모교회, 즉 큰 교회, 강력한 교회의 강인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4절에서 그는 네가 처음 가졌던 사랑을 버렸다고 말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적 기독교의 특징 중 하나, 특히 요한이 묘사한 것처럼 아가페와 접촉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가페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하나님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하며 살 때 나타나는 사랑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날카로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기억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무너지기 쉽다.

죄를 짓는 것도, 작은 일로, 아니 어쩌면 금단의 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일로,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길을 잃습니다. 요한은 “너희가 처음 가졌던 사랑을 버렸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한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이미 에베소에 교회를 세웠고, 아볼로도 에베소에서 사역했으니, 요한일서가 쓰여질 무렵에는 에베소가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아무리 잘 시작했더라도 이 좋은 시작과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잠시 멈춰서 이것이 인간과 복음 수용의 특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세대는 종종 매우 열정적입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며 매우 감사하고 정직하게 살지만, 다음 세대가 오면 때때로 부모의 열정을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오고, 모든 세대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주의와 전통주의의 위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진정한 힘, 순수함, 하나님 사랑의 활력, 그리고 신선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묘사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의 접촉을 잃어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비난하고 넘어가지 않고,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떨어진 곳에서 기억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간 곳으로 돌아가세요.

이것은 기억해야 할 교회, 혹은 교회들의 모임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돌이키거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과 행함,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긴밀하게 얽혀 있는지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언급할 때, 그는 다른 두 가지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단지 행함의 종교일 뿐이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은 행함이었으며,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냥 돌아가서 그 행함들을 다시 행하면 됩니다.

바울이 무슨 행위를 이야기하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마음을 변화시켰고, 그 복음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고, 그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말하는데, 이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를 쉼마(“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의 행동이 변화되고,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돌아가서 처음 행했던 일을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되십시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생활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칭찬에서 시작하여 4절에서 그들에게 질문하고 5절에서 그것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제 6절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합니다. 저도 그것을 미워합니다. 니콜라당을 찾아보면 우리가 니콜라당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맥락에서 우리는 이들이 기독교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은 이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명령, 곧 그분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으라고 명하신 것, 행하라고 명하신 것,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실천하라고 권고하신 사랑에 대한 필요한 열심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콜라당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바는 적지만, 그들은 복음과 그 복음의 발현, 사도 시대에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복음에 반항하는 집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매우 강한 어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미워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그분은 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 의 백성과 교제 할 때 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는 죄인들을 통해 죄인들과 교제하며 어둠에서 돌이켜 자신이 인간 존재에 가져오는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둠 속에 고집하거나 빛으로 나아가 빛의 임재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 반항하고 빛을 거스르는 것을 그는 혐오합니다.

그들은 참된 신앙 공동체보다, 사도보다, 성경이 알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흔히 있는 충동, 즉 반항하려는 충동에 굴복합니다. 어젯밤에 저명한 기독교 지도자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반항적이었는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매일 영어 수업 종이 올리면 1분 동안 교실 밖에 서서 일부러 1분 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옷차림도 좀 지저분했고, 머리도 길었고, 헝클어져 보였지만, 그 수업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표현하고 싶었고, 선생님을 불쾌하게 할 만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때때로 아이들이 반항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당신에게서 반항적인 마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니콜라당은 그리스도께서 혐오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회중에서 행하도록 부르시고 허락하신 바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더라도, 이 구절들에는 교정하는 말씀이 담겨 있지만, 그들은 아직 니콜라당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9절 에서 사람들이 나갔지만 요한이 언급한 무리에 속하지 않았던 것은 니콜라당의 충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요한은 7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그리스도께서도 7절에서 결론을 내리셨으며, 물론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요한이 이렇게 결론지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주리니 곧 하나님의 낙원이라.” 저는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의미하며, 나아가 천국에서 누릴 기쁨과 축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들)는 약속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받았던 메시지를 계속 들을 것이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사랑을 버리는 경향 때문에 날카로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새롭게 되고, 니콜라당과 다른 적대적인 충동에 맞서 굳건히 서고, 새롭게 되어 이생과 내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충만함을 받을 잠재력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요한 서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균형』을 살펴보면서 요한 서신의 저자, 날짜, 그리고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로버트

야브리 박사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균형』에 대한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요한 서신의 저자, 날짜, 그리고 배경을 다룹니다.